로컬플러스

익산시 익우회, 자연보호 캠페인

익산시 기관장 모임인 익우회(회장 익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한웅재)는 16일 지역의 역사를 바로 알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자 미륵사지 탐방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권한대행 한웅재 부시장을 비롯해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송기무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장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유물전시관을 둘러본 후 미륵사지석탑 복원 현장을 관람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왕도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미륵산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며 등반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제출 홍보

군산시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해 내·외국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를 방문해 서면 CD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함라면 지역단체 환경정화

익산시 함라면 지역단체가 16일 오전 새봄맞이 함라산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부녀회, 자율방범대, 참다래유통사업단, 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명은 이날 숭림사 방향 율재주차장과 칠목재 주차장 2개 코스로 나눠 8km가 넘는 등산로 주변을 돌며 버려진 음료 비닐팩, 비닐봉지, 빈병 등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율적인 청소문화 확산과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 홍보를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오수홍 함라면장은 "함라산 둘레길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름다운 함라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국내최초 탄소섬유 보트 진수

코스텍, 선박 무게 20% 줄이고 강도 30% 높여 연비효율 향상 안전성 강화

군산의 한 중소기업이 2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를 적용한 상용화 보트를 건조·진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코스텍유한회사(대표 임종길)는 16일 비응항 일원에서 산업부, 전라북도, 군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소재 상용화 보트 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진수된 보트는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의 R&D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탄소소재를 적용한 상업용 보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에 건조된 보트는 38ft급으로 전장 12m, 폭 4m로 승인가능 인원은 12명이며 실내 인테리어를 전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한옥 분위기로 설계했다.

특히 탄소소재를 적용해 일반 FRP 소재를 사용할 때 보다 선박의 무게를 20% 경량화하고, 강도는 30% 높여줌으로써 연비효율은 높이고 충돌 발생 시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코스텍(유)은 이번 건조된 보트를 일반 상업용 또는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매각 추진할 예정이며 탄소소재를 적용한 보트 건조 기술력을 활용, 해양레저선박은 물론 국내 어선·선박 건조 사업에도 적용·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군산시가 코스텍(유)를 비롯한 더 많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선해양소재 산업분야에서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또한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텍(유)은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제조방법 등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 지원사업인 70ft급 하이브리드 탄소복합재적용 선박개발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간 사업비 9억을 지원받아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내 요트·보트산업의 선도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짙은 안개 선박 안전사고 대책마련

해역별 전담 순찰 · 안전계도 방송 실시 · 비상구조 훈련 등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3월부터 발생하는 짙은 안개로 해양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매년 3월부터 6월까지는 해안에서 발생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바다와 만나 해상에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 시기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우려가 높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379척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134척이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3년 5월에는 군산시 연도 인근해상에서 36톤급 부산선적 A호와 6.6톤급 어선 B호가 짙은 안개로 인해 충돌하면서 어선 B호가 침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역별 전담 순찰 ▲안전계도 방송 실시 ▲비상구조 훈련 ▲구조세력 상시배치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하면 무리한 운항을 삼가고 경적이나 호종을 이용해 선박의 위치를 다른 선박에게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통신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워싱턴 카운티 등과 관 · 산 · 연 · 학 협력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와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군수 그렉 머레이),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대표 이원로)이 관·산·연·학 협력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미국 시장 마케팅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원광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도종 총장과 JG그룹 이근선 회장을 비롯해 워싱턴 카운티 그렉 머레이 군수,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이원로 대표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국제간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 인턴십과 취업연계프로그램 시행 등 공동발전을 추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산·연·관 현장실습을 비롯해 미국 취업을 위한 언어 및 기술 훈련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각 기관의 정보·인력교류 및 공동연구와 특허기술 이전 등 기술사업화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광대 가족회사 개발상품의 미국시장 판로개척 등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다각화 및 가족회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도종 총장은 "JG그룹 이근선 회장님의 노력으로 이번 협약을 맺게 되어 큰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 원광대를 비롯한 3개 기관이 공동 발전하는 성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로 대표는 "3개 기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보건소,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신부전증 외 133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호흡보조기 대여료가 급여로 전환돼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해 국비로 지원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3개월 이내 희귀난치로 확진 받은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군산시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정신건강계 (460-3209)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최근 전북지역 전체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됨에 따라 익산소방서도 적극 동참했다.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이 훈련에서 익산경찰서 협조 하에 경찰순찰차 및 소방펌프차등 총 5대의 차량을 동원해 익산소방서를 출발하여 롯데마트→원대사거리→모현사거리→익산경찰서→소방서의 노선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 방송을 실시하여 긴급출동 시 신속한 대피 및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시민들이 체감토록 유도했다.

한편 익산역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도 실시했다.

익산소방서는 매월 정기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카퍼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소방차 길터주기를 홍보하고, 익산 시내버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길터주기 동참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석 익산소방서장은 "화재는 5분이내, 응급환자는 4~6분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Gdden Time)다. 소방차가 5분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확보 협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운전자들의 협조와 양보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부 사업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관련부서로부터 민간위탁 현황 및 개관 준비 상황 등 설명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민간위탁 하여 운영중인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올해 5월 중 개관 예정인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관련부서로부터 지역사회 문제의 자주적 해결지원을 위해 1993년도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상황을 설명 들었으며, 황등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올해 5월중에 개관 예정인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의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했고,

황등지역형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개관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